

2025.05.29.(목)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에스엠

텐센트 뮤직 2대 주주 등극

[출처]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상향

과거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반영될 때 마다 케이팝 산업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동방신기/빅뱅/BTS 등 핵심 남자 아티스트들이 제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즉, 올해는 BTS 제대 및 블랙핑크 컴백에 더해 한한령 완화 기대감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과거 경험에 근거했을 때 반드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는 산업 내 향후 2년 간 130% 이상의 증익 사이클이 2분기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디어유의 중국 진출을 앞두고 텐센트 뮤직이 2대 주주가 되면서 향후 한한령 완화 시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동시에 오버행 이슈도 해결했다. 라이즈의 앨범 판매 호조 및 벨류에이션을 소폭 상향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170,000원(+13%)으로 상향하며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하이브 보유 지분을 텐센트뮤직이 전량 인수

27일 공시를 통해 2대주주인 하이브가 보유한 9.66%의 지분 전량을 주당 110,000원에 텐센트 뮤직으로 매각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0,000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오버행(장내 블락딜 등) 우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텐센트 뮤직과의 다양한 시너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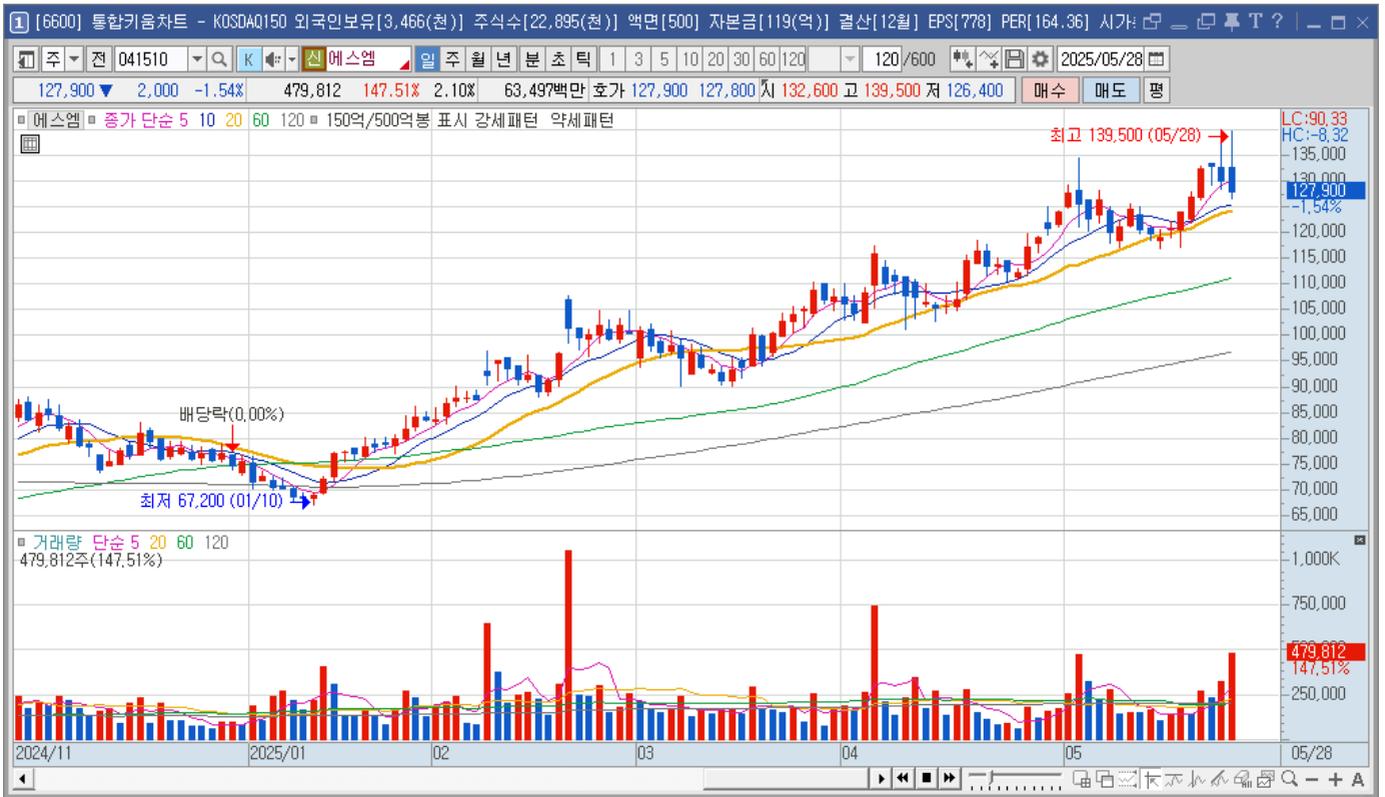
텐센트가 카카오 뿐만 아니라 SM에도 투자를 진행한 만큼 향후 중국향 사업 기회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 텐센트 뮤직의 실적 컨퍼런스 중 케이팝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1) YG와 스타쉽(카카오엔터)와의 계약을 갱신 2) 지드래곤과 중국 본토 내 공식 응원봉 및 기타 굿즈 판매, 3) 에스파의 첫 전시회 및 베이비몬스터의 팝업스토어 개최 등을 진행했다. 향후 SM과 음반/음원 그리고 2차 판권(굿즈 등) 등 다양한 매니지먼트 부문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디어유의 중국 진출도 빠르면 6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내 협업 시너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961.1	989.7	1,117.9	1,198.6
영업이익	113.5	87.3	154.5	185.8
세전이익	118.9	26.1	397.7	209.0
순이익	87.3	18.3	327.4	138.4
EPS	3,664	778	14,261	6,046
증감율	8.95	(78.77)	1,733.03	(57.60)
PER	25.14	97.17	9.11	21.49
PBR	2.91	2.51	0.36	0.26
EV/EBITDA	11.81	10.44	(22.78)	(36.96)
ROE	12.30	2.64	7.45	1.41
BPS	31,631	30,150	356,619	502,177
DPS	1,200	400	1,400	1,500





유바이오로직스

2025년 실적 대폭 성장 전망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콜레라 백신 매출 증가, 영업이익 대폭 증가

동사는 주력 품목 유비콜/플러스/에스 콜레라백신을 공공시장(UNICEF, WHO와 장기공급계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급)에 M/S 100%로 공급 중이다.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160.1% 증가한 395억원, 영업이익이 611.7% 증가한 169억원이다.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유비콜 매출이 증가한 결과이다. 또한 매출에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서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한 것이다.

2025년 공급계약 대폭 증가, 매출은 하반기에 60% 몰려

동사의 콜레라 백신 유비콜시리즈 매출은 유니세프향 공급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공급계약 베이스 매출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의 약 40%가 상반기에, 나머지 60%가 하반기에 발생한다. 2025년 3월 말 기준 유니세프와의 공급계약 현황(LTA)을 보면 2025년 연간 7,200만 도즈(1.08억달러)이다. 이 중 1분기에 1,388만 도즈 (2,949만 달러)는 공급되었다. 나머지는 7,811만 달러는 2분기부터 하반기에 공급될 것이다. 1분기 유니세프향 콜레라 백신 매출액이 389억원이다. 2025년 콜레라 백신 연간 매출액은 보수적 관점에서 총 계약의 약 83% 공급을 가정한 6천만 도즈, 1,415억원(YoY +53.6%)으로 전망된다. 매출 증가, R&D 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72.1% 증가한 591억원으로 전망된다.

콜레라 백신 생산 CAPA 대폭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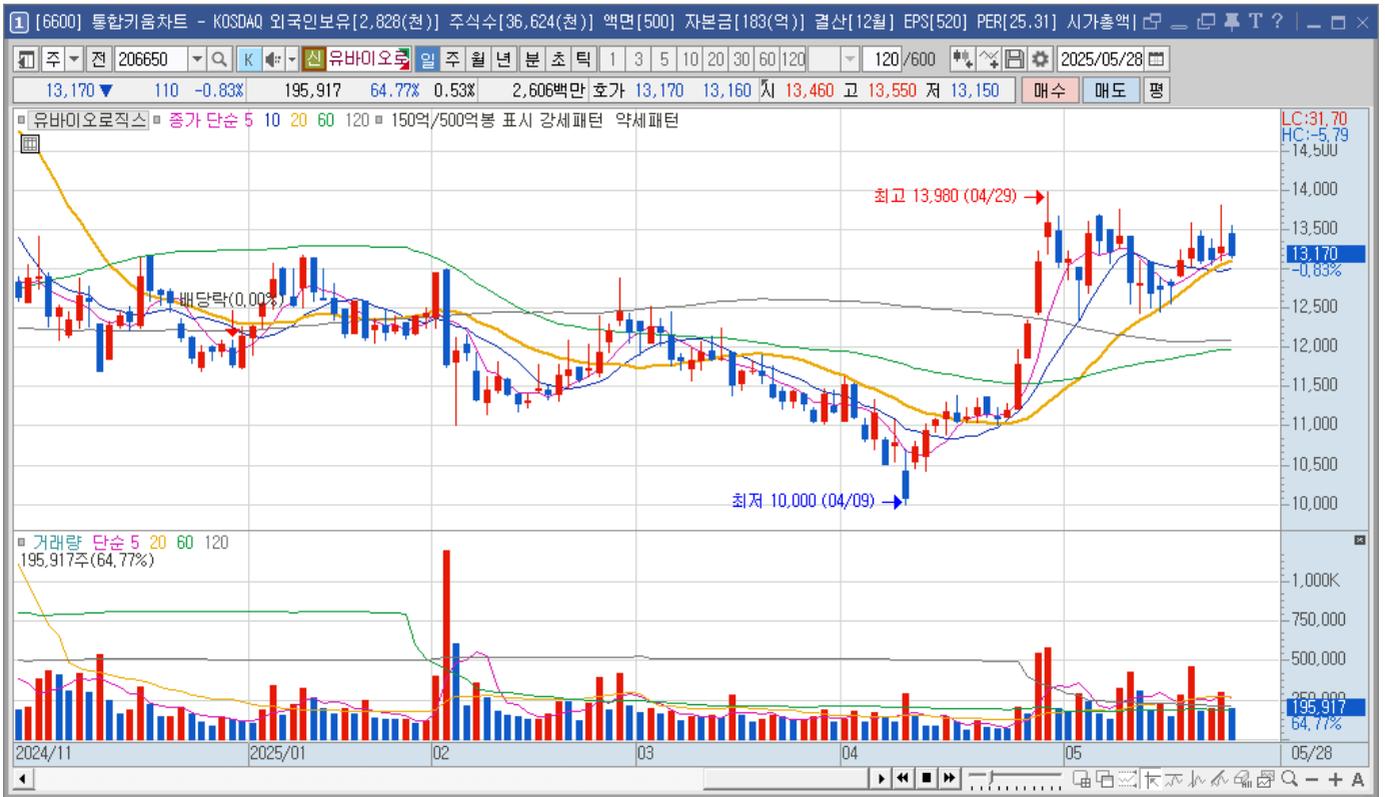
지구온난화로 콜레라 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사는 콜레라 백신 생산 CAPA를 확장 중이다. 2025년 4분기에 제2공장이 완공, 식약처 GMP 승인을 거치면 완제 기준으로 기존의 3,300만 도즈에서 8,800만 도즈로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3	69	9	-13	-361	-31.8	23.8	3.9	-11.7	n/a
2024	96	34	19	520	23.4	9.4	3.4	16.0	n/a
2025E	148	59	51	1,398	9.4	5.9	2.6	32.4	n/a
2026E	151	58	49	1,330	9.9	5.2	2.1	23.4	n/a
2027E	145	55	46	1,248	10.5	4.9	1.7	17.9	n/a

자료: K-IFRS 별도 기준, 상상인증권





삼성

저마진 정리 끝, 신라인 시동, 실적 모멘텀 본격화 기대

[출처] 하나증권 권태우 애널리스트

1분기 리뷰: 제품 믹스 개선과 고정비 절감 효과로 수익성 개선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13억원(+5.3% YoY), 영업이익 23억원(+38.4% YoY)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7.3%로 전년 대비 1.7%p 개선되며 수익성 체력을 입증했다. 포장재(BOPP, 랩) 부문 구조조정, BOPP 감가상각 종료, 커패시터 필름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고정비 완화 효과다. 커패시터 필름 매출은 전분기 대비 확대되며 별도 기준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했고, 일반 전자기기·ESS향 수요 안정과 독일 발전설비향 물량 안착(분기 10억원 이상)이 구라인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커패시터 필름: 시생산 안정화와 신규 수요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

- (1) 신규 라인 안정화 및 고사양 제품 벤더 테스트 진입: 청주 공장의 신규 라인(CAPA 350톤/월)은 시생산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터 제어 및 클립 부품 이슈를 해소하고, 현재는 BEV(3.5μm), PHEV(2.3μm)용 커패시터 필름 시생산이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제품은 고내열·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전장 부품용 필름으로, 국내 증착업체를 통해 완성차 벤더 테스트가 병행되고 있는 단계다. 고사양 중심의 수요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 (2) 글로벌 배터리향 절연 필름 확대 본격화: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업체를 대상으로 한 12μm급 절연 필름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3월 10톤 수준이던 출하량은 4월부터 월 30톤으로 3배 확대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증산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원통형 중심이지만, 각형 배터리용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검토 중이다. 이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대응력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인 신규 수요 기반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3) 수요 반영된 수출 호조, 우상향 트렌드 지속: 2025년 4월 커패시터 필름 수출액은 3.3백만달러(+15.7% YoY), 중량은 788톤(+32.6% YoY)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평균 단가는 4.2달러/kg(-12.7% YoY)로 하락했다. 이는 정기 설비 점검과 생산 최적화 과정 중 발생한 품질 저하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구조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월부터 생산 정상화가 이뤄지며 일부 품목에서는 +5% 수준의 단가 인상이 반영되었고, 가격 결정력 회복과 시장 수용력 개선의 신호로 해석

된다. 특히 PHEV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중단기 수요 기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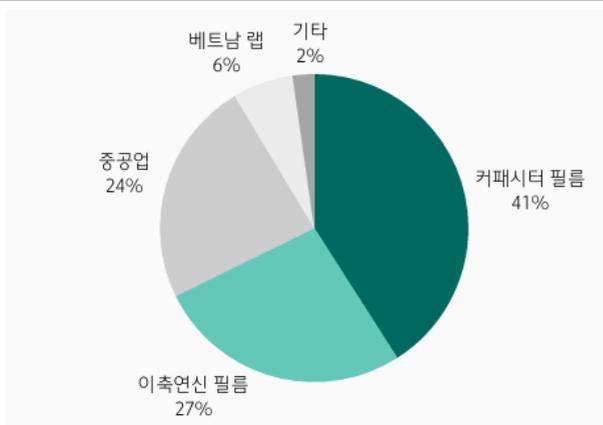
구라인 안정화 + 신라인 가동 → 복합 성장 가속 전망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402억원(+11.2% YoY), 영업이익 153억원(+67.9% YoY)으로 전망한다. BOPP 감가상각 종료, 랩 사업 정리, 커패시터 필름 비중 확대에 따른 구조 전환만으로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며, 3분기부터 본격화될 신규 라인 가동 효과가 더해지면 수익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라인은 고부가 수요가 집중된 4~6 μm 제품 중심으로 연간 350억원 이상의 매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상업화 전환 이후 본격적인 매출 확대와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ABF 이형필름, 2차전지 복합필름 등 신규 소재 사업이 병행되며, 전통 필름업체에서 고부가 소재 기업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중요한 변곡점이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의 유의미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한 만큼, 동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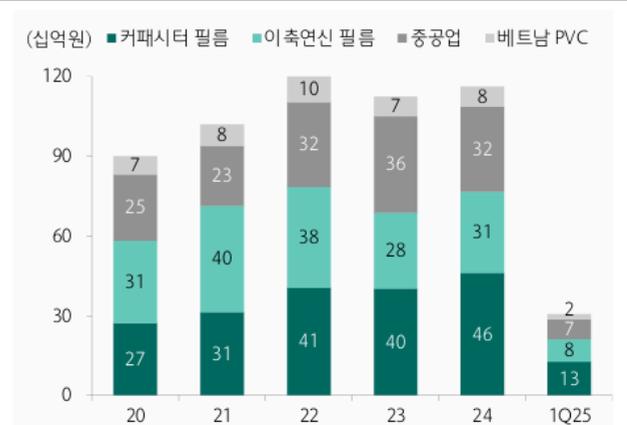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133	135	123	126
영업이익	3	3	6	9
세전이익	3	3	13	9
순이익	3	3	19	8
EPS	102	79	548	237
증감율	1,600.0	(22.5)	593.7	(56.8)
PER	29.4	30.5	8.2	15.6
PBR	2.1	1.6	2.2	1.6
EV/EBITDA	14.6	13.0	14.8	10.2
ROE	7.1	5.2	27.9	11.0
BPS	1,434	1,525	2,051	2,274
DPS	0	0	20	20

도표 1. 1Q25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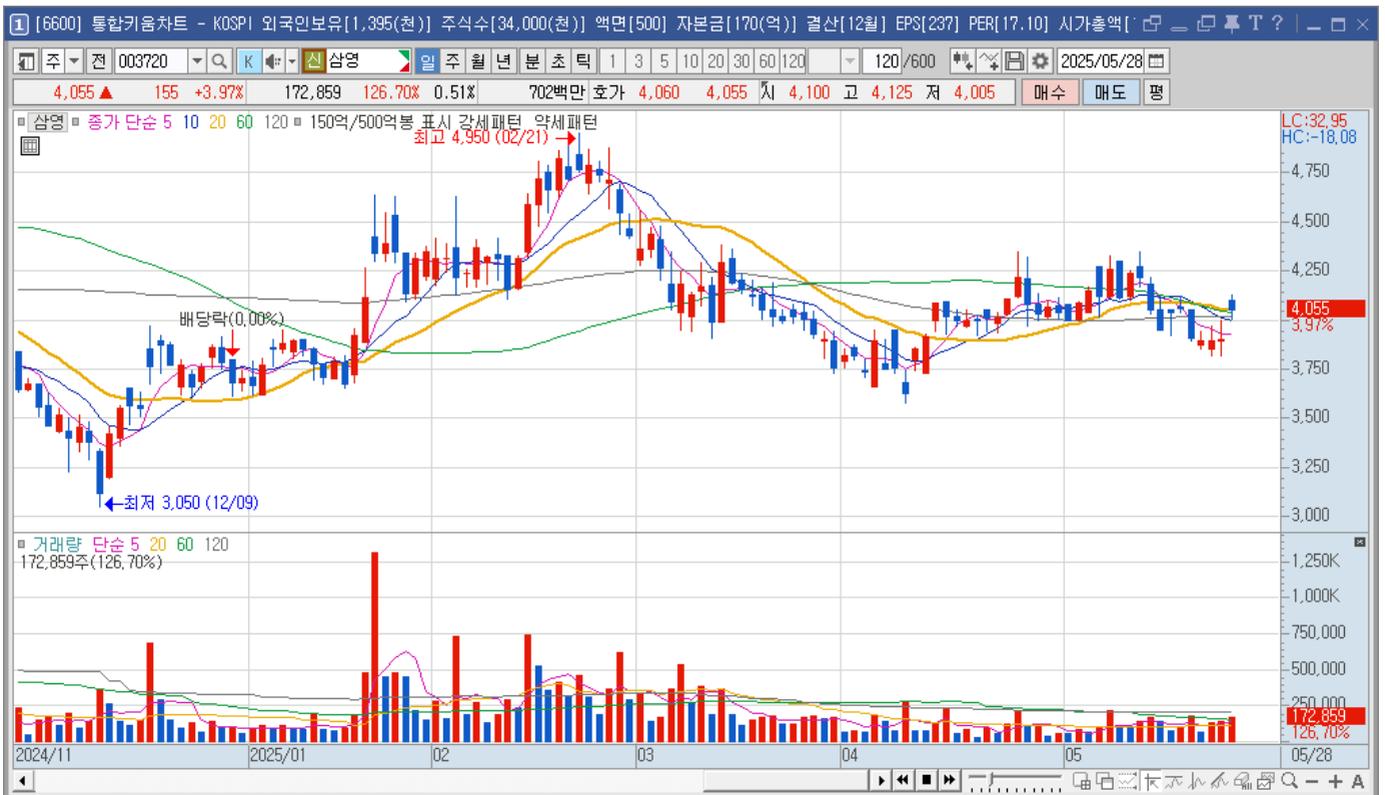


자료: 삼성, 하나증권

도표 2. 삼영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삼성, 하나증권



대한유화

가동률 조정으로 수익성 방어 중

[출처] IBK 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올해 1분기 순이익, 흑자전환

대한유화는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으로 -99억 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나타냈다.

PP/HDPE 스프레드가 하락했으나, 역내외 부타디엔 플랜트의 가동률 축소로 부타디엔 스프레드가 개선된 덕분이다. 한편, 한주와 오드펠터미널코리아 등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실적 호조로 1분기 순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한편 동사는 범용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범용 업체 대비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다. 이는 폴리머 공장이 5개 독립 공장으로 운영되어 다 품종 소량 생산을 통한 고부가 제품 생산의 이점을 가지며, 운영자의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동률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Olefin Conversion Unit를 보유한 No.2(HDPE) 및 No.5(PP) 공장은 HDPE와 PP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사 폴리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고순도 EO 생산 확대로 MEG 업황 둔화 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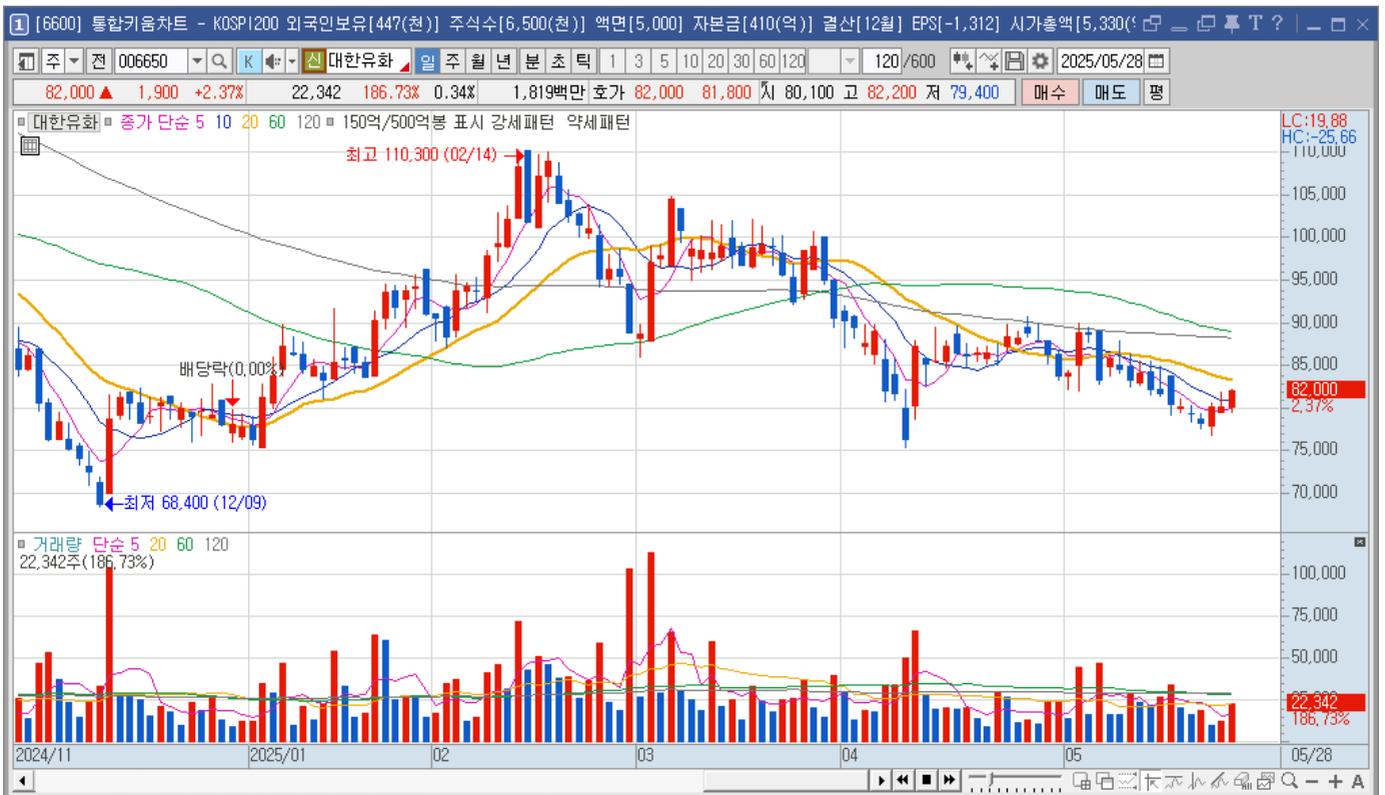
MEG 업황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국의 석탄화학 기반 MEG 증설로 자급률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EO/EG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기존 MEG 플랜트의 가동률을 낮추고 고순도 EO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산 공장 인근 국내 PAG 업체의 증설로 EO 및 유틸리티의 안정적인 판매가 기대되며, 부진한 MEG 업황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 크래커/PDH 증설 확대로 올해도 공급 과잉 현상 지속 전망

역내 크래커 및 PDH 증설이 2025년에도 이어져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수익성을 견인했던 부타디엔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물량 추출 설비 확대 등으로 가격 및 스프레드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500	2,800	2,864	2,793	3,055
영업이익	-62	-60	-4	35	49
세전이익	-50	-33	21	59	80
지배주주순이익	-29	-9	17	46	63
EPS(원)	-4,468	-1,312	2,613	7,126	9,621
증가율(%)	-80.5	-70.6	-299.1	172.7	35.0
영업이익률(%)	-2.5	-2.1	-0.1	1.3	1.6
순이익률(%)	-1.2	-0.3	0.6	1.6	2.1
ROE(%)	-1.6	-0.5	0.9	2.5	3.3
PER	-34.2	-59.2	30.7	11.2	8.3
PBR	0.5	0.3	0.3	0.3	0.3
EV/EBITDA	9.3	4.9	2.9	2.0	1.6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CJ

민들맨, 올리브영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웅 애널리스트

1Q25 Review: 상장 자회사 부진

1Q25 연결 매출액은 10.6조원(+1.6% YoY), 영업이익은 5,350억원(-7.2% YoY), 별도 매출액은 507억원(-42.3% YoY), 영업이익 274억원(-59.4% YoY)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CJCGV 등 상장 자회사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CJ제일제당(CJ대한통운 제외)의 매

출액은 4.4조원(-1.8% YoY), 영업이익은 2,463억원(-7.8% YoY)을 시현했다. 해외식품은 견조한 성장을 보였으나 국내 수익성 부진과 바이오 부문 기저효과로 이익이 감소했다. CJ ENM은 매출액 1.1조원(-1.4% YoY), 영업이익 7억원(-94.3% YoY)을 기록했다. CJ CGV는 국내 멀티플렉스 매출 감소에도 ONS 연결 편입된 영향으로 매출액이 5,336억원(+35.8% YoY)으로 증가했다. CJ프레시웨이는 매출액 7,986억원(+9.2% YoY), 영업이익 106억원(+1.0% YoY)으로 성장했다.

끝나지 않는 성장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은 견조한 외형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1Q25 CJ올리브영은 매출액 1.2조원(+14.4% YoY), 순이익 1,263억원(+19.3% YoY)으로 고성장을 이어갔다. 관광상권의 대형 점포 중심으로 방한 외국인수를 상회하는 외국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매출은 +15% YoY를 기록했다. 온라인 매출액도 +14% YoY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매출액 비중 28.9% 수준을 유지했다. CJ푸드빌은 매출액 2,298억원(+5.6% YoY), 순이익 82억원(-12.8% YoY)이다. 1Q25말 북미 뚜레쥬르 점포수는 155개(23년말 108개, 24년말 150개)로 확장세를 이어갔다. 25년말 현지 생지공장 준공 예정으로 북미 점포 확장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57,000원 제시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57,000원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한다.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영의 실적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CJ올리브영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주가의 우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1Q25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0,600	1.6	-9.3	10,905	2.9
영업이익	535	-7.2	-15.1	623	16.5
세전계속사업이익	269	-12.9	흑전	264	-2.0
지배순이익	70	-1.6	846.4	25	-64.1
영업이익률 (%)	5.0	-0.5%pt	-0.4%pt	5.7	-0.7%pt
지배순이익률 (%)	0.7	-0.02%pt	+0.59%pt	0.2	+0.4%pt

자료: 유안타증권

계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41,353	43,647	45,321	47,722
영업이익	2,039	2,547	2,734	3,134
지배순이익	195	100	340	415
PER	14.1	40.6	12.2	9.9
PBR	0.5	0.7	0.8	0.7
EV/EBITDA	5.7	4.9	4.9	4.6
ROE	3.6	1.8	6.1	7.1

자료: 유안타증권



팬오션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 구간으로 Buy

[출처] DS투자증권 양형모 애널리스트

다운사이드 리스크 제한적이라면 Buy & Hold 전략 추천

벌크선 수주잔고는 지난 2007~2008년 업황 슈퍼사이클에서 대규모 신조 발주 이후 2010년 3.07억DWT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증가한 인도량은 2011~2012년 연 평균 1억DWT를 상회했다. 공급 증가로 인한 수급 밸런스 악화로 운임은 하향 추세를 지속했고, 신조선 발주는 감소했다. 현재 수주잔고는 1억

DWT 수준이며, 2010년 피크 레벨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2016년 이후 인도량은 5,000만DWT를 하회하기 시작했고, 2021년 이후에는 4,000만DWT를 하회하기 시작했다. 2012~2017년 해체량 증가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업황은 침체기를 끝내고, 바닥을 다져가는 업황 회복기에 가까워졌다는 판단이다. 정확한 시기를 언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제부터는 중장기 전략으로 Buy & Hold를 하거나 혹은 벨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월봉 이평선 돌파 순간에는 추격 매수를 추천한다

Dry Cargo Freight Rates의 역사 - 250년 동안 Peak to Peak은 평균 9년

역사적으로 운임은 전쟁, 공황, 금융위기 등 사건사고와 맞물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250년 동안 Peak to Peak은 평균 9년, 최소 5년, 최대 20년을 기록했다. Dry Cargo Freight Rates는 Peak였던 2008년 이후 17년 동안 하락 지속 중으로 상승 전환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Peak까지 2~3년에 걸쳐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체량이 증가한 이후 감소 구간에서 운임은 상승하는데, 해체량이 400만DWT를 하회한 이후 운임은 1995년, 2004년부터 상승을 시작했다. 슈퍼 사이클 이후 해체량이 400만톤을 하회한 적은 없는데, 지난 해 400만톤을 하회했고, 올해는 300만톤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LNG 선박 등 비벌크 부문 투자는 긍정적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벌크 부문에 대한 투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긍정적이다. 또한 LNG 사업은 장기 대선 계약으로 확정되어 마진 유지가 가능하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타 선종 운임 하락을 상쇄 가능하다. 캐쉬카우, 레버리지 투자를 보유한 동사에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5,000원을 유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6,420	4,361	5,161	5,478	5,665
영업이익	790	386	471	500	524
영업이익률(%)	12.3	8.8	9.1	9.1	9.2
세전이익	688	248	282	519	56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77	245	268	407	424
EPS(원)	1,267	458	502	762	794
증감률(%)	23.3	-63.8	9.4	51.9	4.2
ROE(%)	16.7	5.3	5.2	6.7	6.3
PER(배)	4.5	8.1	6.6	4.8	4.6
PBR(배)	0.7	0.4	0.3	0.3	0.3
EV/EBITDA(배)	3.2	4.0	5.0	3.9	3.9

자료: 팬오션,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두산테스나

긍정적 시그널 확인

[출처] 한국투자증권 조수현 애널리스트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1분기 매출액은 593억원(-28% QoQ, -35% YoY), 영업적자 191억원(적자지속QoQ, 적자전환 YoY)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CIS 및 SoC(차량용, AP 등)테스트 가동률 하락과 함께 매출액이 급감하여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제품별로 CIS 가동률은 60%를 하회했고, SoC의 경우 30%대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된

다. SoC 내에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향 매출이 고객사 재고조정으로 인해 감소한 점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이사항으로 영업외수익(53억원)이 2개분기 연속 크게 발생했다. 수요 급감에 따른 유희장비 매각 관련 이익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가동률 회복 확인

3월 중순부터 SoC 가동률의 회복이 확인된 점은 긍정적이다. 30%를 하회했던 가동률은 4월을 기점으로 45%, 5월에는 50%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동률 회복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모바일향 제품군(CIS, AP 등)의 수요가 개선되는 시그널 확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수요 개선은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향 AP를 비롯해 업황 개선 기대감은 있으나 정확한 채택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웨이퍼 테스트 가동률 하락 및 고객사 수요 부진을 반영해 2025년 연간 추정치를 매출액 2,932억원(-21% YoY), 영업이익 28억원(-94% YoY)으로 기존 대비 각각 11%, 89%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SoC 부문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2분기 흑자전환 성공을 전망한다. 2025년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해 유희장비 매각, 유형자산 내용연수 경과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현재 주가는 12MF PBR 1배로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 고객사 사업 개선 시 가장 유력한 수혜주에는 변함이 없으며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20A	133	31	37	2,260	189.2	83	24.9	11.6	4.3	19.2	0.2
2021A	208	54	47	2,776	22.8	142	18.0	6.3	3.2	19.4	0.3
2022A	278	67	52	3,080	11.0	191	8.9	3.6	1.5	18.3	0.6
2023A	339	61	49	2,853	(7.4)	229	20.5	5.4	2.8	13.8	0.3
2024A	364	45	44	2,288	(19.8)	230	10.9	3.0	1.1	10.4	0.6

